

국토 연구와 환경 보전의 지속 가능성을 새 정부에 바란다

지형·생태·자원 등 자연 환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 환경을 총망라해서 지도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조사는 국가의 통치와 민생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새 정부에서 국토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 실행해주길 바란다. 글 이민부(대한지리학회장)

세종과 정조는 개인적인 인생 역정의 마지막은 달랐으나 실용과 경제를 위해 국토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종 대왕의 〈세종실록지리지〉는 국가 통치와 경제 발전, 민생의 안정을 위해 국세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 조사를 한 결과로 보인다. 정조 대왕도 국가 통치를 위한 국토 조사를 위해 지리책(地理策)을 강구하도록 신하들에게 명하고, 그 답을 당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올렸다. 현대의 사가들은 정조 시대를 세종 시대가 다시 오게 기대하면서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라 칭하고 싶어한다.

새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국토, 지역, 도시, 주거, 해양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기록의 작업을 지속해주길 바란다. 조선 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와 함께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통은 해방 이후 1980년대의 〈한국지리〉(국립지리원)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지리지(국토지리정보원)〉 발간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지도집(National Atlas of Korea)〉(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되었다. 세계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만들었던, 한 국가의 자연과 인문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도화해 지도집을 발간한 것이다. 지형·지질·생태·자원 등 자연 환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 인문 환경 등을 망라해 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100년 넘는 전통의 작업을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짧은 시기에 많은 정보를 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다. 이 귀한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보다 정밀하고 풍부한 지도집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국가 지도집은 영문판으로 세계에 알려진다. 우리가 세계에 알려야 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정치·문화적인 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동해와 독도 등의 지명과 영토 문제에 대해 세계 여

러 나라를 설득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다. 지역 지리와 지도화는 GIS(지리 정보 체계)와 GPS(지구 위치 체계)와 함께 거대한 지리 산업(Geographical Industries)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한 지도 이미 오래다. 기업과 자본의 세계화는 물론, 국제 분쟁과 그 해결, 인접한 국가 간의 영토와 지명 분쟁,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의 국제화 등 세계는 이미 각 국가와 지역들이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계를 상대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위한 자원과 에너지도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자원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세계에 대한 지역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국가와 세계 지리와 지도집 연구와 발간은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선진국처럼 적절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된 연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바란다.

한 가지 더 부탁 드린다면, 우리 국토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지닌 국가다. 이러한 인구 지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세계로 진출해야 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인구가 조밀하지만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경제 인구(실질 노동과 취업 인구)는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쾌적한 삶의 공간과 미래를 위해 환경 보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산지와 해안과 하천에 대한 환경 보전 유지, 지속 가능한 개발, 천연 상태의 환경의 보존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제 잘 보전되고 오래전부터 보존된 환경은 미래를 위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갖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관광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첨단의 인공 환경인 도시 개발에서도 생태 도시, 물과 숲이 있는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도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문화가 함께 잘 어우러진 도시와 지역, 마을을 생태적으로 유지하고, 아름다운 산과 숲, 해안과 해양, 하천과 호수가 잘 보전된 국토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국토와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기록은 결국 국토 계획, 지역 계획, 주거 계획은 물론, 산업 입지와 지역 경제, 세계 경제 전략과 함께 지구 온난화 같은 글로벌화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전략적·지속적으로 국토 연구와 기록을 하기 위한 실용과 권위를 함께 가지는 국가 연구 기관의 출연을 간곡히 바란다. 국토와 세계 지역에 대한 지역 연구와 기록, 국토와 세계 지역의 지도화 사업, 부상하는 GIS와 GPS 연구, 지구 탐사를 위한 위성 영상 연구 등을 묶는 방안도 있다. 국민과 국토, 실용과 경제를 함께하는, 그리고 정책에 유연성이 있고, 당장이 아닌 결과도 기다려주는 새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기원한다. ☺

